

# ‘개발만 2년’ 강력한 V8 트윈 터보 엔진에 민첩함은 보너스



## 마세라티 ‘르반떼 GTS’

3.9kg/hp 출력대 중량 갖춰  
최고 속도 292km/h 기록  
통합 차체 컨트롤로 안전성 ↑

국내 자동차 시장이 친환경차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주목받는 차량이 있다. 바로 마세라티다.

마세라티는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는 엔진음과 파워풀한 주행성능으로 운전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마세라티 기블리는 최근 ‘자동차 성지’ 독일서 ‘올해 최고의 차’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처럼 마세라티의 차량이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슈퍼 SUV (스포츠유틸리티차량)로 불리는 르반떼 GTS의 매력을 경험했다.

기존 엔진에 플래그십 세단 콰트로포르테 GTS의 막강한 V8 엔진이 더해진 마세라티 르반떼 GTS는 그야말로 잘 달리고 잘선다. 특히 마세라티 브랜드 내 최정상급 엔진을 탑재하고 독보적인



마세라티 르반떼 GTS.

퍼포먼스와 아름다운 외관 디자인은 럭셔리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연상될 정도다.

우선 이 차량의 가장 큰 매력은 3.8L의 8기통 트윈 터보 엔진이다. 해당 엔진을 탑재하기 위해 개발 기간만 2년이 걸렸다. 최고출력 550hp, 3000rpm에서는 최대 토크 74.74kg.m를 발휘한다. 이 엔진은 페라리의 마라넬로 공장에서 공동으로 제조한다. 르반떼 GTS는 뛰어난 수준의 3.9kg/hp의 출력대 중량비를 갖춰 제로백이 4.2초에 불과하며, 최고 속도는 292km/h를 기록한다. 르반떼 GTS가 SUV 차량임에도 뛰어난 퍼포먼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배경

이다.

시동을 걸자 마세라티 특유의 배기음이 심장을 자극한다. 또 주변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운전자는 뛰어난 승차감과 함께 하차감도 즐길 수 있다.

주행성능은 폭발적이다. 시승은 서울 여의도를 출발해 판교 테크노밸리를 경유해 돌아오는 약 80km 구간에서 진행했다. 차체가 크고 공차 중량이 2300kg에 달해 움직임이 둔탁할 것 같지만, 일상 생활에서는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순간 치고 나가는 힘과 민첩함이 뛰어났다. 특히 고속 구간에서 주행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가속페달을 밟자



마세라티 르반떼 GTS 엔진룸.

엄청난 배기음과 함께 힘있게 뻗어나갔다. 순간 손끝에 모든 신경이 집중될 정도였다. 서스펜션은 기본적으로 단단하지만 마세라티의 다른 세단보다는 부드럽게 느껴졌다.

실내 디자인은 고급스러움과 강인함이 교차했다. 빨간색 가죽 시트를 적용해 스포츠카의 느낌을 받기에 충분했다. 특히 최상급 피에노 피오레 가죽으로 마감된 스포츠 시트와 도어 패널은 더블 스티칭으로 고급스러움을 자아낸다.

르반떼 GTS는 마세라티 르반떼 최초로 통합 차체 컨트롤을 전자식 주행 안전 장치에 도입해 안전성을 높였다.

차량 제어 능력 상실을 방지하는 통합 차체 컨트롤은 차체의 움직임이 불안정할 때 즉각적으로 엔진 토크를 낮추고 각 바퀴에 필요한 제동력을 분배한다. 주행 상황에 따라 향상된 안전성은 물론, 속도를 높이는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마세라티 르반떼 GTS는 잘 달리는 만큼 안전 및 편의사양도 갖추고 있다. 레벨2 수준의 자율주행 기능이 적용돼 고속도로에서 운전자의 피로도를 최소화했다. 특히 차간 거리와 차선 유지는 비교적 안정적이라 핸들에서 손을 놓더라도 크게 불편하지 않았다. 다만 운전자가 주행중 핸들을 잡지 않거나 바르게 잡지 않으면 즉각 알람이 울리며 반응하기 때문에 운전 습관에 따라 호불호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또 차체 전장 5020mm, 전폭 1980mm, 전고 1700mm지만 적재 공간은 생각보다 협소하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르반떼 GTS는 연비가 단점으로 꼽히는데 실제 주행 후 공인 복합연비(5.7km/L)를 훌쩍 뛰어넘는 9.7km/L를 기록했다. 르반떼 GTS의 가격은 2억 207만원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도이치모터스, 작년 매출 1.5조... 영업이익 감소

영업익 455억... 전년비 45% ↓  
일회성 분양 이익 감소 영향

자동차 종합 플랫폼 기업인 도이치모터스는 지난해 영업이익(연결 기준) 455억원을 기록해 전년보다 45.1% 감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매출액은 1조4707억원으로 21.7%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169억원으로 69.9% 줄었다.

도이치모터스 관계자는 “자회사 도이치모토월드가 지난 2018년부터 진행

한 일회성 분양 이익이 빠진 영향과 작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일부 시설 임대차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도이치모토월드는 지난해 수원에 개장한 자동차 복합매매단지다.

다만 도이치모토월드를 제외한 본사 영업에서는 매출액 1조4046억원, 영업이익 374억원으로 전년보다 44.7%, 20.5% 각각 늘었다고 사측은 전했다. BMW와 포르쉐 브랜드의 신차 판매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매출은 사상 최대치

를 기록했으며, 도이치파이낸셜의 경우 영업이익이 50억원으로 61.6% 늘었다.

도이치모터스는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첫 배당을 실시한다. 작년말 보통주 1주당 250원 및 0.02주의 배당 계획을 발표했으며, 다음달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종 규모를 정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안정적인 경영과 지속적인 수익 창출로 향후 체계적인 배당 정책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 AI 해킹 지능화... 사이버보안 트렌드 공개

삼성SDS, 올 사이버보안 7대 트렌드

삼성SDS는 2021년 사이버보안 7대 트렌드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삼성SDS는 ▲비대면 환경을 노린 위협 증가 ▲랜섬웨어 고도화 ▲AI를 활용한 해킹 지능화 ▲산업설비에 대한 위협 본격화 ▲개인정보 등 민감 데이터 보호 중요성 증대 ▲클라우드 대상 공격 증가 ▲의료 분야 집중 공격 등을 주요 키워드로 꼽았다.

특히 비대면 업무환경 확대, 디지털 전환 가속화, 데이터 산업 활성화 등에 따라 사이버 위협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의 철저한 보안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원격근무가 확대되며 보안이 취약한 가정용 네트워크와 단말기를 통한 정보 해킹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임직원의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대한 공격은 물론이고, 메신저·영상회의의 등 업무지원 시스템을 통한 정

보유출을 방지하는 것이 기업 보안의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랜섬웨어는 고도화되고 있다. 컴퓨터 시스템을 감염시켜 접근을 제한하고 데이터 유출 협박을 통해 몸값(랜섬)을 요구하는 악성 소프트웨어다. 기존의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격에서 점차 특정목표를 겨냥한 표적형으로 진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다양한 변종이 출현하고 있고, 랜섬웨어를 서비스형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위협 강도가 커지고 있다.

AI 기술 발전은 보안 영역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AI 학습을 통해 대량의 해킹공격 성공률을 높이고, 딥페이크(AI를 활용한 영상·음성 합성기술)를 이용한 정보외국 및 조작 위협성이 더욱 높아졌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 AI 기반 멀티미디어 위·변조 검출 및 자동탐지·분석 기술이 발전하면서 AI 기반 공격, 방어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 더 빨라진 LGU+ ‘기가 와이파이6 공유기’

기존 공유기 대비 속도 38% ↑

안방에선 화상회의, 작은방에선 온라인 학습, 거실에선 OTT 시청을 동시에 끊김 없이 할 수 있는 와이파이(Wi-Fi) 공유기가 나온다.

LG유플러스는 자사 ‘U+인터넷’ 가입자를 대상으로 기가 와이파이(Wi-Fi)6 신규 공유기를 25일부터 선보인다고 23일 밝혔다. 기존 공유기 대비 크기는 40% 작아지고, 속도는 38% 늘었다.

새로 출시된 U+인터넷 공유기는 미국 브로드컴의 쿼드코어 CPU를 탑재한 고성능 와이파이6 단말기이다. 최대 속도는 기존 866메가비피에스(Mbps)에서 1.2기가비피에스(Gbps)로 38% 빨라지고, 신호 범위는 전보다 15% 넓어진 점이 특징이다.

무선 연결 용량도 기존 대비 4배 가량



모델이 기가 와이파이(Wi-Fi)6 신규 공유기를 소개하고 있다. /LG유플러스

확대됐다. 동시접속 효율 향상(OFDM A/MU-MIMO) 기술을 적용해 온 가족이 다 함께 와이파이를 이용해도 데이터를 원활하게 주고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와이파이로 엄마는 안방에서 화상회의를 하고, 자녀는 작은방에서 온라인 학습을 하면서 동시에 아빠는 거실에서 OTT를 끊김 없이 보는 것도 가능해진다.

/김나인 기자

## KT ‘5G 진화 백서’ 발간

KT는 세계TD-LTE통신사업자연합회(GTI) 회원사들과 5G 기술이 발전할 방향과 새로운 응용 서비스 개발 등 5G의 미래상을 담은 ‘5G 진화 백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5G 진화 백서’는 오는 25일까지 사흘간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되는 MWC 상하이 2021의 파트너 프로그램인 GTI 서밋의 일정에 맞춰서 발간됐다. GTI에는 상임위원사 및 운영위원사인 KT를 비롯해 보타폰, 소프트뱅크, 차이나 모바일, NTT도코모, KDDI, 바티에어텔 등 세계 139개의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KT는 AI 적용, 주파수 활용 극대화, 위성통신과의 연계 등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김나인 기자

## SKT, 새학기 맞이 교육 혜택 ‘풍성’

555명 대상 럭키박스 제공

SK텔레콤은 새 학기를 맞아 4월 5일까지 6주 간 ZEM 애플리케이션(앱)에서 ‘2021 새 학기 반장선거’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 기간 동안 ZEM 앱에 신규 가입하거나 기존 가입 고객 중 자녀 폰과 연동 완료한 고객을 대상으로 ▲영어 홈스쿨링 앱 토도영어 30일 무료 이용권(4000명) ▲Btv ZEM 키즈 콘텐츠

를 이용할 수 있는 Btv 2000원 이용권 2매(4000명) ▲초등 자녀 교육 필독서 8권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윈스토어 북스 이용권(7000명)을 추첨을 통해 제공한다.

SKT는 이벤트 참여 고객 중 555명을 대상으로 럭키박스도 제공한다. 최신형 노트북 및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AI 기반 학습 지원 스마트폰 거치대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